경제혁신 3개년 계획 "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"
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
경제혁신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산업통상자원부 **보 도 자 료**

2016년 5월 11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5.11.(수) 오전 0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6. 5. 10. (화)	담당부서	제품시장관리과
담당과장	전민영 과장(043-870-5420)	담 당 자	황성범 연구관(043-870-5427) 양희찬 연구사(043-870-5424)

네이버 · 카카오, 불법 · 불량제품 유통차단에 나선다

- '포털화면에 결함보상(기콜)정보 홍보지원' 등 양해각서(MOU) 체결 -

□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·카카오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국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해 불법·불량제품 유통차단에 참여한다.

○ 국가기술표준원과 **네이버·카카오는** 5.11(수), 리콜제품 유통차단을 위해 매년 10회 내외로 발표되는 **결함 보상(리콜)정보를 포털화면에 홍보**하는 내용이 포함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.

□ 이번 협약은 **최근 전자상거래의 증가***로 인한 소비자의 위해상품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국표원과 카카오·네이버간 **제품안전 협력체계 강화의 일환**으로 추진한다.

* 온라인쇼핑몰거래액 : ('13) 24조 → ('14) 28조 → ('15) 34조 / 연평균 19% 증가

□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,

○ 국표원은 시중에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**안전성조사 결과 소비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** 적발 시, 이 제품의 정보를 **네이버·카카오에 바로 제공**하고,

○ 네이버·카카오는 자사가 운영하는 **포탈화면에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결함 보상(리콜) 정보를 홍보**하여 소비자가 리콜제품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.

○ 특히, 카카오는 **‘카카오톡 플러스친구*’와 ‘다음막대 광고’**를 통해 **결함보상(리콜)** 정보뿐만 아니라 리콜앱, **결함보상(리콜)**홍보 동영상 등 **다양한 형태의 리콜정보**를 모바일로 제공하기로 했다.

* 카카오톡에서 특정계정을 친구로 등록하면 알림메시지를 제공하는 서비스

□ 이번 네이버·카카오 양해각서(MOU)체결로 **결함보상(리콜)정보 홍보 범위를 일반 소비자까지 대폭 확대했다.**

○ 그동안 보도자료 배포와 유관기관 통보수준에만 그쳤던 **결함보상(리콜)** 정보 홍보를 일반 소비자들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모바일까지 확대한다.

* 인터넷검색 점유율 : 네이버(73%) / 모바일메신저 점유율 : 카카오(96%)

○ 이에 따라,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**결함보상(리콜)**제품에 대한 회수율이 증가해 안전성조사에 따른 **결함보상(리콜)제품 회수율*** **도 획기적으로 개선**될 것으로 보인다.

* 리콜이행현황(‘13년-‘15년) : 제품회수율 41% (회수대상 3,266,040 / 회수제품 1,336,606)

□ 국표원과 네이버·카카오는 협약체결을 통해,

○ 온·오프라인 상에서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,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기대하며,

○ 앞으로 주기적인 의견교환과 리콜제품 홍보를 통해 **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**하기로 했다.

※ 붙임: 국표원, 네이버·카카오 간 업무협약 주요내용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황성범연구관(☎043-870-5427), 양희찬 연구사(☎542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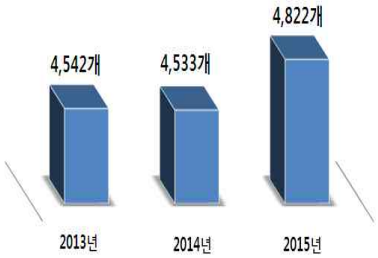
참고 | 국표원, 네이버·카카오 간 업무협약 주요내용

1 추진배경

○ **리콜정보의 대국민 알림서비스 강화**를 위해 국내 최대인터넷포털사이트 '네이버·카카오'와의 홍보협력 필요성 대두

- 위해제품 유통이 매년 증가되고 이에 상응한 **리콜조치도 증가 추세에 있지만, 리콜제품 회수율은 40% 수준에 불과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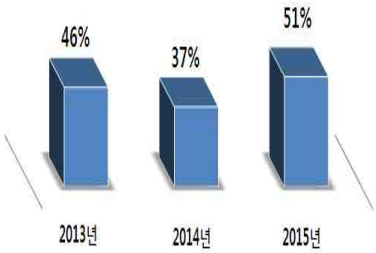
<안전성조사(제품수)>



<리콜조치>



<리콜제품 회수율>



⇒ **대규모 실시간 정보제공이 용이한 「네이버·카카오」와의 MOU 체결을 통해 리콜정보의 대국민 제공서비스 및 리콜회수율 제고 기대**

2 협약체결 주요개요

① **네이버·카카오 포털화면**에 매년 10회 내외로 발표되는 '리콜정보' 홍보지원

- 연초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공산품·전기용품을 신학기, 계절용품 등 10여 차례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

② **카카오톡 플러스친구**(카카오톡에서 특정계정을 친구로 등록하면 알림메시지를 제공하는 서비스)를 이용한 리콜정보 등의 모바일 홍보

- 문체부가 운영하는 '대한민국정부(친구수 28만명)' 서비스도 활용 검토

③ **다음배너**를 통해 리콜정보, 리콜앱 홍보

- 배너광고 형태로 홍보가 되며, 클릭시 일반정보 뿐만 아니라 앱,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 배포 가능

3 협약식 일정

○ **(일시/장소)** ‘16.5.11.(수) 10:00~10:30/더팔레스호텔(강남고속버스터미널옆)

○ **(서명자)** 국표원 및 네이버·카카오 대표

4 기대효과

○ 국내 최대 인터넷포털사이트인 **네이버와 카카오**와의 MOU체결로, 일반 소비자들도 인터넷을 통해 리콜정보를 손쉽게 확인가능

* 인터넷검색 점유율 : 네이버(73%) / 모바일메신저 점유율 : 카카오톡(96%)

○ 특히, 모바일 서비스인 ‘카카오톡 플러스친구’를 통해 리콜정보뿐만 아니라 리콜앱 출시정보, 리콜홍보 동영상 등 **다양한 형태의 리콜정보 알림** 제공

○ 안전성조사에 따른 연간 400여개의 리콜제품에 대한 **회수율* 개선**기대

* 리콜이행현황(‘13년-‘15년) : 제품회수율 41% (회수대상 3,266,040, 회수제품 1,336,606)